



SNU MEDICINE

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
서울대학교 의과대학

미주동창회 제 38차 학술대회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안녕하세요?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김정은입니다.

한국은 요즘 하루에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이나 아침, 저녁으로는 찬 바람이 불고, 한낮에는 따뜻한 햇볕이 내려 쬐이는 변덕스러운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멀리 미국에 계신 미주동창회 임원진분들도 부디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된 미주동창회 제 38차 학술대회에 초청해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, 전경배 미주동창회 회장님, 이만택 미주동창회 재단 이사장님, 남명호 차기 회장님 등 미주 동창회 임원진의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행사가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긴 기간에 걸쳐 저희를 배려하며 세심한 준비를 해 주신 덕분에 먼 곳에서 왔음에도 불편함 없이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더불어, 서울의대 학장단 및 교수진이 함께 참여한 Scientific Session을 통해 보다 넓은 학문교류의 장을 열고 발전적인 고민을 공유할 수 있었음에 큰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.

이번 미주동창회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동문 선생님들과도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 깊게 다가왔습니다. 후배인 서울의대 학생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움을 제안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의과대학에서도 작지만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합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.



SNU MEDICINE

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
서울대학교 의과대학

앞으로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미주동창회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미주동창회 임원진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. 미주동창회와 함께 성장해나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3년 4월 10일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김정은 드림